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오후 가정예배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2020.06.07 주일

<p>목도</p>	<p>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p>
<p>신앙고백</p>	<p>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p>
<p>찬송</p>	<p>“나의 영원하신 기업(찬송가 435장)”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p> <p>[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p>
<p>기도</p>	<p>인도자(가족 중에서)</p>
<p>성경봉독</p>	<p>시편 119편 65-72절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p>
<p>설교</p>	<p>“고난의 유익”</p>
<p>가족합심기도</p>	<p>1.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가정이 되어 잘 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2.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살게 하옵소서. 3.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p>
<p>주기도문</p>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p>

고난의 유익

시편 119편 65-72절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19로 단절된 삶의 무게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눈에 고난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고민하며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고난이 인생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성경은 3가지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며 자녀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 자신이 그릇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된 길, 죄악 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형통을 누리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결코 돌이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히12:8)."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녀 됨을 고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 잘못 된 길에서 자녀된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인 하나님의 법을 찾게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잘못 된 길을 가고 있는 자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깨닫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찾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잘못된 길을 깨달은 사람은 올바른 길인 하나님의 법을 찾고 배우려고 합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결국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기에 시인은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말합니다.

셋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 119:65)

혹시 고난중에 하나님의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옳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좁은 소견을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익을 발견하는 거룩한문 성문교회 영가족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많은 일에 강요된 고립과 단절된 삶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며 고난의 의미를 묻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유익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후에 있을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